



정용진 부회장

유통가 선도하는 신세계 남매의 '선의 경쟁'

베어로쇼핑 등 신사업 '장군'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 '명군'



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그룹의 정용진·정유경 남매가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에서 각각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 부문을 맡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베어로쇼핑'을 오픈하는 등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며 백화점 부문을 책임진 여동생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8일 재계에 따르면 2015년 신세계그룹의 경영 체제가 '정용진-이마트-정유경-백화점'으로 나뉜 가운데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 확장 행보가 더 빨라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015년 말 인사에서 정유경 당시 부사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남매경영 체제가 됐으며, 이후 두 사람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용진, 베어로쇼핑·스타필드·온라인 정 부회장은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이며 유통 혁신을 가속하고 있다. 지난달 이마트는 '재밌는 상품'과 '미친 가격'을 표방하는 만물잡화점 개념의 전문점 '베어로쇼핑'을 서울 코엑스에 선보였다.

신선식품부터 가전제품까지, 천남 코너부터 명품 코너까지 4만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빈틈없이 진열해 판매하는 국내에 없는 새로운 컨셉트의 매장이다.

신세계조선호텔의 첫 독자 브랜드 부티크 호텔인 '레스케이프'도 이달 서울 중



베어로쇼핑.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 모습.

/연합뉴스

각 영역서 공격 경영으로 시너지 ↑

정용진 온·오프 넘나들며 유통혁신

정유경 지난해 매출 1조 '흑자 전환'

구 퇴계로에 문을 연다. 19세기 파리 귀족 사회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가져와 일반 호텔과 다른 로맨틱한 분위기가 특징이라고 호텔 측은 소개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대형마트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정 부회장은 온라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월 외국계 투자운

용사2곳에서 온라인 사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자받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로 나뉘어 있는 온라인 사업부를 통합하고, 이커머스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해 그룹 내 핵심 유통 채널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설법인은 2023년 연 매출 10조원을 달성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자리에 오른다는 목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경기도 안성에 스타필드 안성을 착공해 2020년 스타필드 4호점으로 오픈하고 내년에는 각종 아시아 식품을 판매하는 이마트 PK마켓을 미국에 새로 문 열 계획이다.

◆정유경,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획득

백화점, 면세점과 패션, 화장품 사업을 책임진 정유경 총괄사장은 지난달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화장품·패션 2개 면세구역 사업권을 모두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2012년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면세사업을 시작한 신세계면세점은 롯데와 신라 등 경쟁한 경쟁사를 모두 제치고 사업권을 싸늘이하면서 사업 진출 6년 만에 면세 3강 구도를 구축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정 사장이 인천공항 사업권 획득을 위해 높은 입찰액을 적어내는 등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인천공항 제1 터미널 화장품·패션 면세장과 강남 센트럴

시티에 면세점 강남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흑자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매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백화점이 만든 첫 뷰티 편집숍 '시코르'도 신성장 날개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12월 대구신세계에 시코르 1호점을 낸 지 1년여 만에 지난달 용산 아이파크몰에 13호점이 문을 열었다.

신세계는 올해 시코르 20호점까지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세계 센트럴시티도 8개월간의 개보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JW 메리어트 서울로 리뉴얼 오픈한다. 이 호텔 리노베이션에는 올슨 쿤딕, 카사포 등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거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신세계가 6302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지난 5월 착공해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백화점과 호텔, 전망대뿐 아니라 과학, 문화 체험시설 등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도 스타필드 고양에 '이마트 콘텐츠'와 시코르 등 '백화점 콘텐츠'를 한데 모아 시너지를 내는 등 주요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영민 "5G, '세계 최초'에 의미뒤야"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사간 5G 과열경쟁 경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의미가 희석되면 안 된다"면서 5G 상용화에 대한 국내 이동통신업체 사이의 과열 경쟁 가능성을 경계했다.

유 장관은 취임 1주년인 11일을 앞두고 지난 5일 과학과학관에서 "혁신성장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들어 있지만, 이 부분을 주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두잉(Doing),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 조직의 변화 등을 더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어려운 도전이 규제 개혁이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 잘하겠다"면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7월 중순에 발표하고 하반기에 연구 현장에 접목되도록 유망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이 알기 쉬운 말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간부들이 스피치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전국을 다니며 명가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밝혔다.

유 장관은 국내 이통사가 5G 상용화를 위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는 "중국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답변을 자제했다. 다만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결국 서비스이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말기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뉴스1

통신 장비에 접속된다"며 "단말기가 우리 산업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통3사 중 누가 먼저 세계 최초인지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1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가고 관련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이통사의 특정 장비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이통사간 과열 경쟁으로 내년 3월 5G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영민 장관은 "정부는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하고 법규, 규제 등 할 일을 해주면 된다"고 정부 역할을 규정했다. 서로 침예하게 싸우지 않고 준비하도록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법은 법대로 가고 그것이 자극돼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퇴직연금 94% 단일금융사 전담... 경영체제 필요"

보험연구원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국내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 대다수가 단일 금융회사에게 퇴직연금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간 서비스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연구소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94%가량이 단일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단일 금융회사가 기업규모의 구분 없이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를 일괄 담당하

고 있는 구조인 것. 금융회사간 경쟁 부재로 동일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규제 완화로 가입자의 니즈가 변화했다"며 "단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에서 전문화된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개별서비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상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해 가입자의 충성심을 높이는 반면 위탁전문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수익경쟁력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화에 주력하고 있는 영역은 연금 제도설계 영역, 운용상품 제공 영역, 투자상담 및 자문 영역, 가입자교육 영역이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운용상품을 개발해 특화된 투자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제도 설계 및 재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기업의 비용부담 능력이나 근로자 속성을 고려해 DB형 퇴직연금을 설계해 주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정평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은 "EU 재정동맹, 시장불안 요인 가능성"

해외경제 포커스

유로지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동맹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 이후 긴축재정 등으로 경제상황 개선이 지체되는 데다 유로지역 내 중심국과 취약국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유럽통합의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8일 한국은행은 '해외 경제 포커스' 보

고서를 통해 유로지역 내 유럽통합을 둘러싼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국을 중심으로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 반EU정서를 반영한 분리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등 정치세력화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유로지역은 경제통합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심국과 취약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토대로 유럽통합을 완결하는 재정동맹(Fiscal union)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로지역이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금융의 경기조절기능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 흡수 및 경제안정화 능력 등에서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재정동맹을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재정 여건 동질화와 금융 재정 연계를 통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 재정정책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